

1. 2002년9.8 국가직7급 국어

【문 1】 ‘교각살우(矯角殺牛)’와 비슷한 뜻은?

- 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②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랴.
- ③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④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문 2】 다음에 들어갈 속담 중 맞는 것은?

이 첫인상이란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이 워낙 작고 오종종하고 졸토뱅이로 생겼으면 남에게 한 손 접히는 것이 열이면 열 번이다. “제비는 작아도 강남만 잘 간다.”라든지 “_____”라는 속담이 통하기 전에 “산이 커야 골이 깊지” 하는 선입견을 주기 쉽다.

- ① 산이 우니 돌이 운다. ②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
- ③ 작은 고추가 맵다. ④ 인물 좋으면 천하일색 양귀비

【문 3】 다음 중 어문 규정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버스, 터미널, 휴게실, 텔레비전 프로그램 ② Busan, Jongno, Seongnam
- ③ 먹거리, 앓았습 ④ 베품, 초점, 맞추었습니다

【문 4】 밑줄 친 문장을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도록 바르게 고친 것은?

저희는 사후(事後) 수습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여러분의 심려를 씻어 드릴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 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②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③ 사고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④ 사고 원인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문 5】 다음 고딕체로 표시된 부분 중 언어 예절에 적합한 것은?

- ① 남편의 누이가 왔기에 나는 “고모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았다.
- ② 나는 오늘 약속 장소에 선친 생신이어서 가지 못했다.
- ③ 사장이 김 과장에게 “자당께서는 안녕하신가?” 라고 물었다.
- ④ 선생님께서 제 아버지의 이름을 물어 저는 “김자 동자 수자”라고 하였습니다.

【문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름에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女王)과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 ① 달의 특징을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내었다.
- ② 그믐달과 보름달의 특성을 대비해서 표현하였다.
- ③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④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문 7】 다음 시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심미적 가치는?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① 숭고미 ② 해학미 ③ 우아미 ④ 비장미

【문 8】 다음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표현 기법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① 상징 ② 역설
 ③ 은유 ④ 대구

【문 9】 한자어의 독음과 뜻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眞摯(진집) : 참되고 착실한 마음
 ② 造詣(조예) : 학문에 뜻이 깊고 예술의 수준이 높음
 ③ 苛斂誅求(가검주구) : 가혹하게 징수함
 ④ 弄璋之慶(농장지경) : 딸을 낳은 기쁨

【문 10】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잘못 바꾼 것은?

- ① 가가호호(家家戶戶) : 집집마다
 ② 하자(瑕疵) : 흠
 ③ 파행(跛行) : 순조로움
 ④ 시비(是非) : 잘잘못

【문 11】 표기가 바르게 된 것끼리 나열된 것은?

- ① 육개장, 찌개, 돌아가시오
 ② 어께, 어쨌던, 짜집기
 ③ 웬지, 남녀, 으스대다
 ④ 통털어, 복불복, 전세방

【문 12】 어미의 된소리 표기가 맞지 않는 것은?

- ① 나도 같이 갈께
 ② 우리도 함께 갈까?
 ③ 나도 같이 갑니까?
 ④ 나라고 못 갈쏘냐?

【문 13】 다음 중 파생어는 몇개인가?

건널목, 검불다, 바가지, 부나비, 마무리, 지붕, 핏고추

- ① 한 개 ② 두 개 ③ 세 개 ④ 네 개

【문 14】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할아버지께서는 돈이 많이 계시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자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신다.
- ③ 아버님 그이가 출근하셨습니다.
- ④ 선생님께서 저에게 여쭙셨던 문제 풀었습니다.

【문 15】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가 들어 있는 문장은?

- ①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 ② 수출량을 더 늘리기로 했다.
- ③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 ④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 많을 것이다.

【문 16】 다음 중 맞춤법에 모두 맞게 표기된 문장은?

- ① 인제 채비가 다 되어서 모레면 떠날까 한데요.
- ② 어차피 늦었으니 금세 설거지를 마치는 대로 갑시다.
- ③ 개는 서둘거나 망서림 없이 깎듯이 예의를 차렸어.
- ④ 흰칠한 허위대에 넓직한 얼굴의 남자가 찾아왔다.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랏말싸미 中 國 國 到 달아, 文 明 字 號 와 로 서르 스몏디 아니 훌쩍 이런 전츠로 어린 百 姓 姓 性 이 니르고져 훌 배 이셔도, 므츨내 제쁘들 시러 퍼디 몏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 嬴 亨 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덥 字 號 를 밍그노니, 사름 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 便 安 安 한 科 亨 고져 훌 썩르미니라.

- ①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해서 1445년 반포되었다.
- ② 나랏말싸미가 바른 표기다.
- ③ ‘어린’은 ‘愚’, ‘어엿비’는 ‘憫’의 뜻이다.
- ④ ‘전츠’는 ‘故’, ‘시러’는 ‘載’, ‘하니라’는 ‘多’의 뜻이다.

【문 18】 다음 글의 주제는?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하니 뵈썩, 곶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그르매 아니 그츨썩,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 ① 조선의 영원한 발전 ② 조선 건국의 정당성
- ③ 문화의 우수성 ④ 이성계의 용맹성

【문 19】 다음 문학 장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나리에
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일로 나리 조약에
낭의 지니시던
마음이 끝을 좇누아저
아아, 갯가지 높아
서리 모르시울 화반이여.

- ① 5구체, 7구체, 10구체이다.
- ② 불교적 상상력을 토대로 한다.
- ③ 3단 구성으로 시조와 형식이 유사하다.

④ 「도이장가」와 동일한 계열이다.

【문 20】 ‘지청구하다’의 뜻은?

- ① 까닭 없이 남을 원망함.
- ② 괜히 두려워하다.
- ③ 의상값 청구.
- ④ 성품이 곱고 부드럽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3	3	2	2	3	4	4	2	2	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4	2	3	2	3	1	1	1

전용대 해설>

1. 정답 ③

해설 ‘교각살우(矯角殺牛)’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말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뜻이다.

2. 정답 ③

해설 빈 칸 바로 앞의 “제비는 작아도 강남만 잘 간다.”와 유사한 속담을 고르라는 문제이다.

3. 정답 ②

해설 ① 텔레비전 → 텔레비전

③ 앉았음 → 앉았음 *명사형 어미는 ‘-(으)ㄴ’이다

④ 베품 → 베풀 *베풀+ㄴ(명사형 어미)

4. 정답 ②

해설 접속 조사 ‘과’로 두 개의 명사구를 이어서 서술어 ‘마련하여’의 목적어로 쓴 부분인데, 흔히들 잘못 쓰는 표현이다. 여기에서는 앞뒤 구 둘 다 하나의 서술어를 공유할 수 없으므로 앞 명사구를 ‘목적어 - 서술어’의 구조를 갖춘 이어진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5. 정답 ③

해설 ① ‘형님’으로 써야 한다. ‘고모’는 ‘나’의 자식이 쓰는 말이다.

② ‘선친’은 돌아가신 본인의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다. 살아 계신 본인의 아버지라는 뜻을 띤 ‘가친(家親), 엄친(嚴 親)’ 등으로 고쳐야 한다.

④ 성(姓)을 생략하고 ‘동자 수자’ 해야 맞는 표현이다.

6. 정답 ④

해설 나도항의 수필 ‘그믐달’의 일부이다. 보름달과 그믐달을 각각 원관념으로 하고 여왕과 공주를 보조 관념으로 하여 두달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연결어로 ‘같은’을 써서 직유법을 사용했다. ‘대비’라는 말은 대상의 차이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7. 정답 ④

해설 임과 사별한 화자의 슬픔을 노래한 것이다.

8. 다음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표현 기법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① 상징 ② 역설 ③ 은유 ④ 대구

정답 ②

해설 임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임을 원망하거나 임에게 애원하지 않으며, 슬픔을 나타내지도 않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서로 모순되게 표현한 '역설'이다.

9. 정답 ②

해설 ① 독음 : '진지'

③ 독음 : '가령주구'

④ 뜻 : 아들을 낳은 기쁨. *딸을 낳은 기쁨을 뜻하는 성어는 '농와지경(弄瓦之慶)'이다.

10. 정답 ③

해설 '파행(跛行)'은 원래 '절뚝거리며 걷는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일이나 계획 따위가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됨'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11. 정답 ①

해설 ② 어깨, 어췌든, 짜깁기

③ 웬지

④ 통틀어

12. 정답 ①

해설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외의 나머지는 'ㄹ' 뒤에서 예사소리로 적는다. ①의 'ㄹ까'는 의문형 어미가 아니므로 'ㄹ게'로 적어야 한다.

13. 정답 ④

해설 바가지(박+아지), 마무리(마무르+이), 지붕(집+웅), 풋고추
(풋+고추)

14. 정답 ②

해설 ① 간접 높임법에 맞추어서 '계시다'를 '있으시다'로 고쳐야 한다.

③ 압존법에 따라 '출근하셨습니다'를 '출근하었어요'로 고쳐야 한다.

④ 객체 높임을 잘못 썼다. '여쭙셨던'을 '물으셨던'으로 고쳐야 한다.

15. 정답 ③

해설 '가던지 오던지' → '가든지 오든지'

16. 정답 ②

해설 ① '한대요'를 '한대요'로 고쳐야 한다. '한대요'에서 '데'는 과거 회상의 뜻이 있을 때 쓰는 어미이다. '아까 그 영화 배우가 이 앞으로 지나가데.', '야, 그 여자가 정말 그렇게 예쁘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올바른 표기인 '한대요'의 'ㄴ대'는 'ㄴ' 다고 해'가 준 말로, '급한 불일이 있어서 꼭 가야 한대(하+ㄴ대)'처럼. 다른 사람이 한 말

을 인용할 때 쓴다. ①문장은 ‘... 떠날까 한다고 해요’로 풀어 쓸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의 끝 부분을 ‘... 떠날까 한대요(하+ㄴ대+요).’로 고쳐야 한다.(2002년 8월 단기 특강 교재 30쪽 100번 참조) 여기에서 문장 끝에 붙어 있는 ‘-요’는 상대 높임의 종결 보조사이다. 문장 첫머리의 ‘인제’는 ‘지금에 이르러’라는 뜻이므로 적절한 말이다.(스파국어 787쪽 참조)

② ‘금세’를 흔히들 ‘금새’로 쓰는데 두 말은 전혀 다른 말이다.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라는 뜻으로 ‘금세’를 맞게 썼다. (스파국어 764쪽 참조)

③ ‘망서림’은 동사 ‘망설이다’의 명사형 ‘망설임’으로 고쳐야 한다.

④ ‘허위대’를 ‘허우대’로 고쳐야 한다.

17. 정답 ③

해설 ① 1446년 반포

② 나랏말싸미

④ 시러 - 能히

18. 정답 ①

19. 정답 ①

해설 ‘항가’의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항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 등의 형식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 작품은 추모가로서항가계 여요인 「도이장가」와 내용상 계열이 동일하다고 할수 있다.

20. 정답 ①

<총평>

실제 언어 생활에 관련된 문법과 어휘가 집중적으로 출제되리라고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던 경향 그대로 출제되었다. 맞춤법과 표준어에 관한 것 5문제, 올바른 어법을 지킨 문장 쓰기 3문제, 단어 구조에 관한 것 1문제 등 실용 문법에 관한 문제로 8문제가 출제되었다. 또한 한자어와 속담, 순우리말 어휘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5개가 나왔다. 실용 언어 생활에 관련된 문제로 총 13개가 출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얼른 보면 순수하게 문학 문제처럼 보이는 ‘그믐달’과 ‘진달래꽃’에 관한 문제도 표현 기교를 출제한 것으로 보아 실용 문법과 유사하게 언어 구사 능력을 묻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필자는 강의 시간에 이러한 출제 방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미 강조해 왔고 강의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해왔다. 따라서 강의 내용을 충실히 듣고 반복한 학생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타 일반 교양 수준을 평가하는 문제로서, 고전문에 관한 것 3문제, 현대사에서 미의식을 묻는 문제가 1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시험에서 현대 문학사에 관한 것이라든지 고전과 현대 문학의 단순 암기 사항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언어 구사 능력을 묻는 문제로 중심적인 출제 경향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행정고시의 ‘공직적격성 테스트(PSAT)’의 실험 평가 문제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7급 시험을 다시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출제되는 7·9급 공무원 국어 문제는 과거의 정통 국어 문제보다는 실용 언어 능력을 묻는 문제로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사항을 주지하여 그에 맞는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